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8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10월 23일 (음력 9월 2일) 월요일

"한반도 비핵화 지키겠다"

김정일 평양발언…"6자회담 갈테니 금융제재 풀라"

韓 "상황 변화"…美·日선 "제안 받은게 없다" 일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추구는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남북한 간의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탕자쉬안 국무위원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향후 반응을 주시하겠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이 우리를 못살게 굴지 않겠다고 한다면 추가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함께 주목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유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점과 금융제재 해제와 6자회담 복귀 조건의 변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핵실험 강행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중국 특사에게 조건부이긴 하지만 '핵실험 유예' 방침을 전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도 과거와 다소 변화된 언급을 한 것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이 여전히 전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탕 국무위원이) 북한 입장을 일부 이해한다는 뜻에서 중국 나름의 입장을 밝힌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같은 제안을 (탕 위원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한 소식통도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하고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친환경농업 정착 멀었다

판로 불안정한 '벼'만 집착

보조금 부족 중도포기 늘어

위기에 빠진 전남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친환경농업이 시행 2년째에 접어 들었지만 판로가 불안정한 벼농사에 집중된 데다 기술적인 한계와 보조금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의 친환경농업 인증 목표 면적 3만 2천390ha 가운데 벼 단지 조성이 1만 9천ha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확기 판로를 고민해야 하는 벼농사와 안정된 판로와 고소득이 보장되는 특작·채소· 과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시작된 친환경농업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벼 이외의 작물별 재배면적은 과수가 3천362ha로 14%, 채소가 2천272ha로 9%, 밭작물이 1천86ha로 4%, 특용작물과 임산물 등이 2천900여ha로 4%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22일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2만 4천 248ha 가운데 인증절차가 까다로운 대신 소득이 높고 판로 걱정이 덜 한 특수 작목의 인증률은 36.3%, 밭작물은 40.0%, 채소는 58.3%에 머물렀다.

반면 매년 판로확보가 최대 관건인 벼의 인증률은 82. 3%로 다른 작물을 크게 웃돌아 작목별 편차가 심했다.

또 도내 친환경농업 인증신청 면적 3만 1천254ha 가운데 관련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받은 면적은 2만 4천248ha로 74%의 인증률을 보였다. 신청 면적 가운데 26%가 탈락한 것은 행정기관 주도로 친환경단지 조성이 추진돼 마지못해 참여한 농가들이 영농초기에 수로나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리고 영농중에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하는 탓으로 분석됐다. 〈2면으로 계속〉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가을 단비 오랜 가을 가뭄을 해갈하는 반가운 단비가 내린 22일 광주시 남구 압촌동의 한 상추밭에서 안부일(67·왼쪽), 정시남(62)씨 부부가 빗속에서 상추를 수확하며 활짝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社告

제12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이삼규 전남대교수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제 12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 건강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한 신체기능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삼규 교수로, 신경근육계·근육골격계 기능 증진 방안, 유연성 운동의 생활화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해 줄 것입니다. 강좌의 주요 내용은 오는 31일(화요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제 : 활기찬 노년기 삶을 위한 신체기능 증진방안
■강 사 : 이삼규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전남대 대학원 박사
- 국제재활의학회(암스테르담 등)연제발표
- 한일재활의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 대한재활의학회·대한뇌졸중학회·국제재활의학회(ISPRM)·한일재활의학회(KJJCRM)·한일뇌졸중학회(KJSA) 회원

■일 시 : 10월 27일 오후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8091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오늘 광주시교육감 선거 ▶8면

최규하 前대통령 서거

향년 88세…국민葬 예정

최규하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서교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 37분께 영면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22일 최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 전 대통령은 12·12 사건과 5·18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지만 국회청문회나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그의 별세로 인해 5·18 발포명령자 등 12·12와 5·18의 진실이 묻히게 됐다.

이날 최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정·관·법조계 인사들과 지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빈소를 찾았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여야 대선 주자들도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유족은 장남 최윤홍 씨 등 2남 1녀.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재광주광양향우회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고향을 떠나 온 뒤 잠시나마 잊고 지내던 향우들과의 정감을 나눌 수 있는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서로 간에 교분과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오후 5시부터
■장 소 : 무등산 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
■연락처 : 011-603-9150(이돈재)
019-605-3298(전갑석)

재광주광양향우회 회장 허 재 호